

# 청소년 정치·행정 형성요인과 정치·행정 의식수준간의 관계

## - 대전 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

Relation with an Factor Forming Politic Administration and Awareness Level  
- Focus on High School Students in Dea-Jeon -

최호택\*, 류상일\*\*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Ho-Taek Choi(htchoi@pcu.ac.kr)\*, Sang-Il Ryu(ryusangil@cbnu.ac.kr)\*\*

### 요약

본 연구는 곧 현실 정치에 참여하게 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치에 대한 지식, 정치성향, 정치에 대한 효능, 정치에 대한 신뢰, 정치신뢰 등의 하위 변인들로 이루어진 청소년의 정치의식과 이러한 정치의식 형성에 영향을 준 정치 사회화 매체에 대해서 분석해 봄으로써 미래 우리 정치의 주체인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을 알아보고 효율적인 정치 교육이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방향을 제시해보는 과정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분석결과, 정치·행정 형성요인과 청소년의 정치·행정 의식수준간의 영향관계는 가정, 학교, 동료집단,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형성된 의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동료집단에 의해 형성된 의식은 정치·행정 의식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미치고, 반면 매스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것은 청소년의 정치·행정 의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중심어 : | 청소년 정치의식 | 정치행정 형성요인 | 대전지역 청소년 정치의식 |

### Abstract

This research analysis politic knowledge, politic awareness and politic socialization medium which influenced forming politic awareness for high school students. This purpose is that we find politic awareness of teenagers and how we teach politic education for teenagers effectively.

After analysis, we found that awareness formed through home, school, colleague group and mess media influence teenagers to make their important factor of forming politic and administration and awareness level of politic and administration.

■ Key word : |Politic Awareness of Teenagers | Factor of Forming Politic and Administration | Politic Awareness of Teenagers in Dae-Jeon|

## I. 서론

향후 정치는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어떠한 정치의식을 갖게 되는가에 그 성패가 달라질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 있어서도 고등학생은 육체적으로나 심리적,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변화와 발전 과정을 겪게 되는 시기이며, 무엇보다도 정치적 지식과 사고에 있어서 최대의 발전을 경험하게 된다. 고등학생들은 가

족이나 학교, 동료집단과 매스미디어 등의 다양한 정치 사회화 매체들을 통해서 정치적 정보를 획득하게 되고 이를 평가하며 정치적 정향 및 정치태도를 형성해 나가게 된다. 이처럼 고등학생 시기가 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나 국가의 미래 주역을 육성해 나가는데 있어서나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학생들의 정치사회화의 일차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가정은 제구실을 하고 있지 못하며, 학교에서의 정치교육 역시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인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4].

이에 학교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본래의 정치교육의 목적과 부합할 수 있는 정치교육 정상화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인 지금, 정치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의 정치의식이 어떠한가를 파악해 보는 과정은 그 일차적인 단계가 될 것이다.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치의식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의 발전에 대한 가능성을 예견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효과적인 정치교육을 계획하고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해 보는 바이다.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 이후 미국의 학계에서 주요한 연구 분야의 하나로 등장하였고,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부터는 지역별로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을 조사한 다양한 연구 논문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다. 특히, 청소년의 정치의식이 어떠한가를 파악하는 것은 정치교육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한 교수방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한 청소년의 정치의식을 조사하는 것은 청소년 정치교육의 기초조사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곧 현실 정치에 참여하게 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치에 대한 지식, 정치성향, 정치에 대한 효능, 정치에 대한 신뢰, 정치신뢰 등의 하위 변인들로 이루어진 청소년의 정치의식과 이러한 정치의식 형성에 영향을 준 정치 사회화 매체에 대해서 분석해 봄으로써 미래 우리 정치의 주체인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을 알아보고 효율적인 정치 교육이 학생들의 특성에 따

라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방향을 제시해보는 과정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연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07년 9월 21일~10월 5일까지 15일 동안 650부를 배포하여 635부를 회수하여 회수율 97.69%를 보였다. 이 중 유의한 표본 600개를 연구의 표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자료 수집을 위해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측정은 Likert의 5점 척도(매우 부정 - 1점, 부정 - 2점, 보통 - 3점, 긍정 - 4점, 매우 긍정 - 5점)방식으로 등간 척도로 구성하였고, 설문지 분석은 통계패키지 SPSS Win 7.5를 이용하였다. 인구통계 변수를 정리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각 요인에 대한 설문문항의 구성타당도 및 내적 일관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 및 신뢰도 검증(Reliability Test)을 실시하였고, 평균값분석(Descriptive Statistic), 일원배치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상관관계분석(Analysis of Correlation), 회귀분석(Multi-Regression Analysis) 등을 사용하였다.

## II. 청소년 정치행정의식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 청소년 정치행정의식 조사에 대한 이론적 검토

본 연구는 국가 역할로써 정치영역과 행정영역에 대한 청소년의 정치·행정 형성요인과 정치·행정 의식 수준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정치·의식을 심어주고자 하는 데 있다. Weber(1922)는 정치가와 행정관의 역할을 명확히 분류함으로써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정치영역과 행정영역 모두 국가의 역할로써 정치, 행정 그리고 정치·행정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 1.1 정치행정의식의 개념과 정치사회화

전근대적 전통사회의 구속적인 여러 가지 규제로부터 개인의식의 해방은 개인으로 하여금 정치에 있어서의 자주성을 갖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정치권력으로 하여금 마음대로 개인을 조종할 수도 있게 만들었다. 이로 말미암아 현대정치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 정치의식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사람들의 어떤 정치행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그와 같은 선택으로 인도하는 의견과 판단과 인상(image)과 감각 등이 작용한다. 사람들의 정치행동을 결정케 하는 정신작용을 정치의식이라고 부른다. 즉 정치의식이란, 정치와의 관계에서 사람이 갖는 의식의 총칭, 바꾸어 말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정치적 사상과 특정한 정치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인식·평가·태도를 총칭하여 정치의식이라 한다.

정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견, 정치상황에 대한 나름대로 판단, 정치권력에 대한 인상, 정치적 요구에 대한 감각적 반응 등이 각 개인으로 하여금 정책과 권력에 대해서 일정한 태도를 취하게 하며 일정한 행동도 선택케 한다. 한편, 사회화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 어린 시기로부터 그 사회의 제도화된 목표나 규범 또는 일반적으로 문화의 체계화되고 있는 가치체계를 내면화시켜, 그것을 통하여 사회적, 문화적으로 동일화·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데,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므로 성장에 따라서 정치생활에 관련되는 가치체제, 신념, 태도 등을 체득해 나가는 과정을 정치사회화(political socialization)라고 한다. 즉, 정치사회화란 그 사회의 정치문화를 그 성원들에게 전승해 주는 과정이며, 또한 정치생활 양식에 적응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5-7].

다시 말하면 정치사회화란 정치문화에의 유도과정이며 그것에 의해서 사회성원이 일정한 정치적 정향을 형성해 가는 학습과정이다. 아동기의 성장함에 따라서 잠재적인 정치사회화의 비율은 저하되는 데 대하여 현재적인 정치사회화의 비율은 가속화된다. 초기의 가족생활에서는 잠재적인 사회화가 가장 중요하며, 현재적인 내지 명시적인 정치사회화는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학교생활에 있어서는 잠재적 및 현시적인 정치사회화가 아울러 진행되는데, 고등학교의 단계에서는 후자가 중요성을 더하게 된다. 그 후에도 잠재적인 사회화는 줄곧 계속되지만 직업상의 제 관계나, 자발적 집단 및 정당에의 참여, 또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나 현실정치와의 접촉을 갖게 되는 후자와의 생활경험 속에는 현실적인 사회화가 더욱 중요성을 갖는다[8-15].

### 1.2 청소년 정치행정의식 형성요인

일반적으로 청소년 정치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 학교, 동료집단, 매스미디어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표본으로 정치사회화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980년대 초에, 부산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990년대 초에 진행되었다[16].

정치적의식 형성의 매개체에는 가정, 학교, 동료집단, 사회계급, 인종집단, 직업, 생활환경 그리고 대중매체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 중에서 가정과 학교는 전통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사회화 매개체로서 주목을 받았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중매체가 폭발적으로 증가·보급되어 정치정보 전달에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대중매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1.3 정치행정의식 수준

정치적의식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가치대상은 바로 국가라고 볼 수 있다. 국가에 대한 태도는 흔히 국민적 일체감(national identity)이라 하여 이를 중요시한다. 국민적 일체감은 개인의 미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기본적 가치관을 제공하는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국민적 일체감은 현존의 정권담당자를 포함한 정치체계의 구조, 규범 및 정치체계 내의 타인과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 등도 포함한다. 그리고 민족사회의 전통과 명맥, 관습, 역사적 기억 및 과거 정치지도자들의 지도 이념, 지도양식, 행위 등 역사적인 전통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 부문이다[17].

한편, Almond와 Verba는 정치적 정향의 대상을 분류하는데 있어 일반적 정치체계로부터 출발한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체로서의 정치체계는 애국심·소외감과 같은 감정, 크다·작다·강하다·약하다 등의 국가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포함한다. 다음으로 정치구조·역할담당자·정책 등에 관련되는 투입-배출의 정치·행정과정, 그리고 다른 한쪽 끝에는 정치적 행동자로서 '자아(the self)에 대한 정향으로 개인적인 정치의무 규범과 정치체계에 대한 개인적 능력의 내용, 특성 등을

중요시하고 있다[18].

이에 대해 Rosenbaum은 정치의식의 핵심요소(core components)로서 ① 정치구조에 대한 정향, ② 정치체제 내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향, ③ 자신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정향의 세 가지로 대별하고 있다[19]. 그런데, 정치의식의 요소로서 정치정향에 관한 그의 조작적 분류는 특이하게 구성되어 있다. 즉 ①의 정치구조에 대한 태도는 주로 체제정당성에 대한 믿음과 투입-배출의 정치적 과정에 대한 태도를 들고, ②의 정치체제 내의 타인들에 대한 태도 속에는 정치적 일체감·경기수척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시민생활에 충성감을 느끼는 사회적 일체성의 단위를 집단·국가 등 어디에다 두느냐에 관심을 두고, 후자의 경우 경기수척은 주로 시민상호의 행동규범을 말하고 있다. 이상 몇 학자들의 정치의식의 요소별 유형에 관한 주장에서 보면, Easton의 정치정향 대상으로서의 정치체제 분류는 Almond와 Vwrbra의 정치체제 일반에 관한 분류와 비슷하다. 또한 Rosebaum의 정치정향에 대한 정치체제의 분류 역시 대동소이하다.

한편, 백종태(2002)는 정치의식 유형을 국가 및 애향의식, 정치 참여 의식, 정치 신뢰 의식, 준법 및 질서의식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12].

## 2. 연구의 조사 설계

### 2.1 분석을 위한 변수 선정의 논리

정치사회화는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는 사회화 과정, 즉, 재사회화과정이 진행된다. 보통의 어린이 및 청소년은 가족, 학교, 매스미디어 등을 통해서 정서적, 인지적, 평가적이라는 순서로 태도를 변화해 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8-15]. 이에 본 연구는 정치·행정 의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서 정치·행정에 대한 형성 변수의 지표를 가정, 학교, 동료집단, 매스미디어로 선정하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의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 2.2 연구의 분석 틀

청소년 정치·행정에 대한 인식조사의 연구 분석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소년 정치·행정의식

에 인구 사회학적 요인과 정치 및 행정의식 형성요인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정치·행정의식이 형성되게 된다는 가정 하에, 인구 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행정의식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또한, 인구 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행정 형성요인 형성의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청소년 정치·행정 형성요인과 정치·행정 의식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를 위한 표본은 대전광역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07년 9월 21일~10월 5일까지 15일 동안 650부를 배포하여 635부를 회수하여 회수율 97.69%를 보였다. 이 중 유의한 표본 600개를 연구의 표본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위해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측정은 Likert의 5점 척도(매우 부정 - 1점, 부정 - 2점, 보통 - 3점, 긍정 - 4점, 매우 긍정 - 5점)방식으로 등간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지 분석은 통계패키지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각 요인에 대한 설문문항의 구성타당도 및 내적 일관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 및 신뢰도 검증(Reliability Test)을 실시하였고, 평균값분석(Descriptive Statistic), 일원배치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상관관계분석(Analysis of Correlation), 회귀분석(Multi-Regression Analysis)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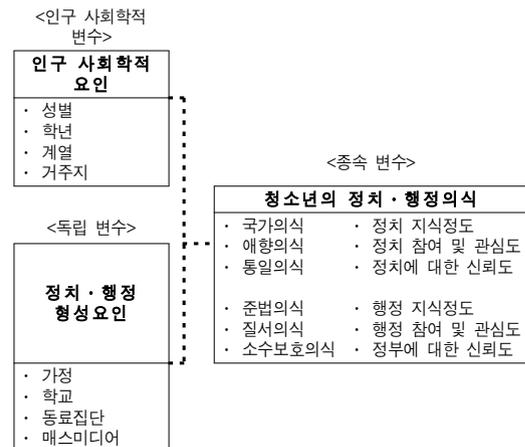


그림 1. 연구 분석의 틀

### III. 청소년 정치·행정 의식에 대한 분석: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 1. 청소년의 정치·행정 의식수준 일반 분석

##### 1.1 인구조화학적 특성

소년의 정치·행정 의식조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고등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우선, 성별은 여자 300명, 남자 300명으로 각 50%씩의 응답분포를 보였다. 학년별 분포는 1학년 190명으로 31.7%, 2학년 212명으로 35.3%, 3학년 198명으로 33.3%의 응답분포를 보였다. 거주지역의 분포는 동구 24명, 4.1%, 중구 42명, 7.2%, 서구 194명, 33.3%, 유성구 292명 50.2%, 대덕구 30명, 5.2%의 응답분포를 보였고,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분포는 100만원 이하가 116명으로 20.4%, 101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가 154명으로 27%, 20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가 172명으로 20.2%, 301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가 48명으로 8.4%의 응답분포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학력분포는 초등학교 졸업이 20명으로 3.5%, 중학교 졸업이 66명으로 11.5%, 고등학교 졸업이 215명으로 37.3%, 대학교 졸업이 254명으로 44.1%, 대학원 이상이 21명으로 3.6%의 응답분포를 보였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24명으로 4.2%, 중학교 졸업이 83명으로 14.4%, 고등학교 졸업이 309명으로 53.6%, 대학교 졸업이 148명으로 25.7%, 대학원 이상이 12명으로 2.1%의 응답분포를 보였다.

또한 정치나 행정에 관한 지식을 접하는 계기를 분석한 결과 부모님을 통해서가 48명으로 8.2%, 친구를 통해서가 18명으로 3.1%, 선생님을 통해서가 24명으로 4.1%, TV를 통해서가 336명으로 57.7%, 인터넷을 통해서가 144명으로 24.7%, 신문을 통해서가 6명으로 1%, 교과서 등 서적을 통해서가 6명으로 1%의 응답분포를 보였다.

##### 1.2 청소년의 정치·행정 의식수준 분석

대전 지역 고등학생들의 정치·행정 의식수준을 분석해본 결과 아래와 같이, 국가의식(3.9501)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소수보호의식(3.7466), 질서의식(3.3679)이 높았다. 반면에 정치에 대한 신뢰(2.1950)가 가장 낮

았고, 다음으로 행정지식정도, 행정 참여 및 관심정도, 정부에 대한 신뢰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1. 정치나 행정에 관한 지식을 접하는 계기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부모님을 통해	48	8.2
친구들을 통해	18	3.1
선생님을 통해	24	4.1
TV를 통해	336	57.7
인터넷을 통해	144	24.7
신문을 통해	6	1.0
교과서 등 서적을 통해	6	1.0
합계	582	100.0

표 2. 청소년의 정치·행정 의식수준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청소년의 정치·행정 의식수준 분석	국가 의식	594	3.9501	.7549	
	애향 의식	594	3.2811	.9614	
	통일 의식	594	2.9865	1.1758	
	준법 의식	594	3.0707	.7851	
	질서 의식	588	3.3679	.6521	
	소수 보호 의식	594	3.7466	.7863	
	청소년의 정치·행정 의식수준 분석	정치 지식 정도	594	2.7601	.8481
		정치 참여 관심	594	3.0438	.8906
		정치 신뢰	588	2.1950	.7086
		행정 지식 정도	594	2.1978	.6729
행정 참여 관심		594	2.2938	.6691	
정부 신뢰	594	2.3577	.8493		

\* 평균 : 1(매우낮음) / 5(매우높음)

#### 2. 정치·행정 형성요인과 청소년의 정치·행정 의식 수준간 관계 분석

##### 2.1 정치·행정 형성요인과 청소년의 정치·행정 의식 수준간 상관 분석

청소년의 정치·행정 형성요인과 정치·행정 의식수준간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가정, 학교, 동료집단,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형성된 의식이 정치·행정 의식수준과 정(+)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매스미디어(0.595)가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였고, 다음으로 가정(0.545), 학교(0.503), 동료집단(0.465) 순으로 상관성이 있었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의 올바른 정치·행정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며, 가정과 학교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정치행정 형성요인과 청소년의 정치행정 의식수준간 상관 관계

구분		정치·행정 형성 요인			
		가정	학교	동료 집단	매스 미디어
Pearson 상관계수	청소년 정치행정 의식	.545**	.503**	.465**	.595**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2.2 정치·행정 형성요인과 청소년의 정치·행정 의식수준간 회귀 분석

정치·행정 형성요인과 청소년의 정치·행정 의식수준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가정, 학교, 동료집단,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형성된 의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동료집단에 의해 형성된 의식은 정치·행정 의식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미치고, 반면 매스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것은 청소년의 정치·행정 의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text{청소년 정치·행정 의식} = 1.571 + 0.151(\text{가정}) + 0.110(\text{학교}) + 0.09203(\text{동료집단}) + 0.187(\text{매스미디어})$$

표 4. 정치행정 형성요인과 청소년의 정치행정 의식수준간 영향 관계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1.571	.063		24.741	.000
가정	.151	.026	.218	5.725	.000
학교	.110	.021	.202	5.379	.000
동료 집단	9.203E-02	.024	.144	3.894	.000
매스 미디어	.187	.022	.328	8.504	.000
a 종속변수: 청소년 정치행정 의식					

3. 소결론: 분석결과의 시사점 및 발전방향

분석결과 청소년의 정치·행정 형성요인과 정치·행정 의식수준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매스미디어에 의한 영향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인터넷 보급의 확대, TV 방송프로그램에 의한 매스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치·행정에 대한 의식수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따라서 보다 객관적이고 올바른 정치·행정 교육 또한 이를 통해 보급될 때 미래 정치 주역으로서 청소년들에 대한 바람직한 정치·행정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정치·행정에 대한 대화와 의식 형성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 청소년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교육은 이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스스로 제시할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어

본 연구는 곧 현실 정치에 참여하게 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치에 대한 지식, 정치성향, 정치에 대한 효능, 정치에 대한 신뢰, 정치신뢰 등의 하위 변인들로 이루어진 청소년의 정치의식과 이러한 정치의식 형성에 영향을 준 정치 사회화 매체에 대해서 분석해 봄으로써 미래 우리 정치의 주체인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정치·행정 의식수준을 분석해보니, 국

가의식(3.9501)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소수보호의식(3.7466), 질서의식(3.3679)이 높았다. 이는 대전지역 청소년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국가를 위하는 의식과 소수를 보호하는 의식수준이 높고, 또한 질서 의식이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정치에 대한 신뢰(2.1950)가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행정지식정도, 행정 참여 및 관심정도, 정부에 대한 신뢰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행정 형성요인과 청소년의 정치·행정 의식수준간의 영향관계는 가정, 학교, 동료집단,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형성된 의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동료집단에 의해 형성된 의식은 정치·행정 의식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미치고, 반면 매스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것은 청소년의 정치·행정 의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참 고 문 헌

[1] 조성남, 박선웅, *청소년 하위문화와 정체성 정치*, 사회과학연구논총, 2001(7).  
 [2] 한덕웅, *한국 사회 문제에 대한 국민의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Vol.1, No.1, 1994.  
 [3] 이극찬, *정치학*, 법문사, 1997.  
 [4] D. Oesterreich, A Classroom Climate Allowing for Free Discussions and the Political Education of Adolescents, *Zeitschrift für Pädagogik*. Vol.49, No.6, 2003.  
 [5] 박종남, *청소년 정치의식과 정치사회화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6] 김옥자, *정치사회화과정으로서 조선소년단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7] S. Abuateya, Adolescents' Behaviour and Political Conflict: the Case of Palestinian Students, *NEW ERA IN EDUCATION*, Vol.82, No.1, 2001.  
 [8] 김영인, *제16대 대선이 청소년 정치의식에 미친 영향과 청소년 정치교육*, 청소년학연구, Vol.10,

No.2, 2003.  
 [9] 고경임, *청소년 의식구조의 형성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원우론총, 1993(11).  
 [10] 김창언, *청소년의 정치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농촌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1] 백연, *청소년 정치의식 연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12] 백종태, *고등학생들의 정치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순천과 진주지역을 대상으로*,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3] G. A. Almond and J. S. Coleman, *The Political of the Developing Areas*, Prinnton: Prinnton University Press, 1960.  
 [14] G. A. Almond and S. Verba, *The Civic Culture: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63.  
 [15] H. B. Samuel *The Analysis of Political Systems*, H. B. Samuel and B. U. Adam, *Pattern of Government: The Major Political System of Europe*, New York: Random House, revised and enlarge edition., 1962.  
 [16] 이선미, *청소년의 정치의식에 관한 변인연구: 수도권 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7] Dean Jaros, *Socialization to Politics*, New York : Praeger Pub, 1973.  
 [18] G. A. Almond and S. Verba, *The Civic Culture: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63.  
 [19] Walter and A. Rosenbaum, *Political Culture*. New York : Praeger, 1973.

저 자 소 개

최 호 택(Ho-Taek Choi)

중신회원



- 2000년 7월 : 영국Manchester Metropolitan University(행정학 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배재대학교 사회대학 행정학과 조교수
  - 2005년 7월 ~ 현재 : 배재대학교 자치여론연구소 소장
  - 2006년 11월 ~ 현재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 평가위원
  - 2006년 11월 ~ 현재 : 충청남도 혁신분권연구단 위원
  - 2006년 1월 ~ 현재 :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 한국 공공행정학회 연구위원장
- <관심분야> : 시민참여, 지방재정, 지방위기관리정책

류 상 일(Sang-Il Ryu)

정회원



- 2001년 2월 : 청주대 행정학과 (행정학사)
  - 2003년 2월 : 충북대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석사)
  - 2007년 8월 : 충북대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 2006년 11월 ~ 현재 :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선임연구원
  - 2008년 4월 ~ 현재 : 충청대 행정학부 겸임교수
- <관심분야> : 조직이론, 위기관리, 소방행정, 갈등관리, 네트워크관점